

감성적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를 통한 치유적 사무공간에 관한 연구

-막스 뤼셔의 심리치유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Healing working space through Aesthetic Office Landscape -Focused on the Psychological Healing theory of Max Lüscher-

진달래* 김광호** 김혜연*
Jin Dal-Rae Kim Kwang-Ho Kim, Hye-Yeon

Abstract

The concept and spatial composition of office have endlessly changed according to social trend. And according to social change, members of office, namely, concept of organization has been changed. Presently, our society finds and needs appearance of office suitable for our society. According to a concept of ecological environment and a concept laying stress on human, various trials have been performed but still, stress of salaried men is treated as social issue. By having connection between psychological healing theory of Max Lüscher and spatial expression elements (content : refuge, self-esteem : prospect, confidence : flow, liberty : void) as a theory, we discussed possibility of aesthetic office landscape could be developed to a type of office which could control emotion that can be a cause of stress and we intended to examine limitation and possibility through case analysis.

키워드 : 감성적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막스 뤼셔의 심리치유이론, 만족 : 피난처성, 자존 : 조망성, 자신 : 흐름, 내면적 자유 : 허공
Keywords : Aesthetic Office Landscape, Psychological Healing theory of Max Lüscher, Content : Refuge, Self-esteem : Prospect, Confidence : Flow, Liberty : Void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대두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하면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넓게는 산업이나 유통의 구조, 좁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어디서나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업무방식의 개념 및 기업의 가치관에 심층적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 들어 사무실의 업무공간에 관한 사무환경 개선이나 신개념 오피스와 같은 문구들이 언론매체를 통해서 자주 언급되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사무조직의 체질도 변화하고 있으며, 구성원간의 의사소통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는 사무환경에도 영향을 주어 사무 공간 계획에서 기존 틀을 벗어난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

사무공간의 개념은 업무를 처리하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구성된 조직과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 그리고 그 업무 수행을 보조해주는 기술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과거의 사무공간에 대한 요구는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과 같이 단지 업무 수행을 위한 보조적 차원의 기능으로 충분하였으나 오늘날의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서의 사무공간은 지적 생산성의 형상과 기업이념의 표현 도구로서, 그리고 구성원의 자기발전을 위한 장소로서 그 기능과 요구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직장인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고 사무공간은 이러한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중요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관료중심적인 조직체계에서 수평적 조직체계로 전환되면서 효율적 작업성을 위한 인간 중심의 다원적 업무환경을 중시하여 사무공간을 권위의식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업무공간과 생활공간의 연결로서의 효과를 갖게 하는 치유적인 사무공간의 계획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사무공간에서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결방안의 하나로써 심리학자인 막스 뤼셔의 치유 이론을 적용하여 공간표현과 연계시킨 감성적 Office Landscape의 사무공간 계획의 가능성과찰을 이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환경미학실험실 연구보조원

** 정회원,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이 연구는 2007년 인하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함

1.2 연구방법과 범위

사무환경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사무공간계획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감성적 언어로서의 Office Landscape의 개념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한다. 이러한 전제와 연계된 Office Landscape의 공간표현요소에 대해 고찰하고 계획안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하도록 한다.

기초자료로서는 사무환경의 변천과정과 사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레이아웃을 문헌을 통해 고찰한 후, 인간중심적인 사무환경을 창출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례에서 도출하여 프로젝트에 반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론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사무공간의 개념을 파악하고 변천요인과 변천과정에 대하여 고찰하고 3장에서는 감성적 언어로서의 Office Landscape의 개념, 막스 뤼셔의 심리치유 이론을 중심으로 공간표현개념을 연계시켜 Office Landscape의 의미를 이해하고 4장에선 관련 사례를 조사하여 공간표현 및 심리적 해결요소들을 비교분석한다.

2. 사무공간의 유형분류 및 변천 과정 고찰

정보사회로의 발전은 사무자동화와 정보통신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는 사무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사무공간유형의 개발을 가져오고 있다. 사무환경이란 사무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사무종사자가 일하기 위한 여건의 총칭이다. 퍼실리티 매니지먼트의 관점에서의 정의는 물리적인 업무공간과 사람, 조직의 일이 서로 조화롭게 유지되는 환경을 말한다¹⁾. 따라서 사무환경은 사무조직의 특성과 변화를 반영하며 업무의 유형과 흐름에 따라 구성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무공간에서 생활하게 되는 조직은 특정 목표달성을 위한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실체로서, 개인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실체이다. 궁극적으로 목적달성이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하나의 과업을 다수의 하부시스템으로 나누어 수행하는 사람들의 상호 관련된 행동시스템이며,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통하여 개인의 만족, 성취감, 집단의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인간과 물리적 사무환경과의 상관관계를 다룬 조직이론은 고전적인 웨버의 관료주의 개념, 테일러의 과학적 경영, 인간주의적 이론에까지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이론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춰 그 초점을

을 달리하고 있다. 웨버는 정형적 관료주의에 초점을 맞춰 지위의 상징성을 강조하며 위계와 역할에 대해 논하고 있고 테일러는 업무의 효율적인 분할과 절차를 통해 과학적인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Hallow나 Herzberg, Likert, Homans²⁾는 인간주의적 관점에서 상호작용과 업무환경 등에 관련해 논하고 있다. 조직 이론과 더불어 물리적 사무환경 또한 사무공간과 조직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조직의 구조나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야 한다고 요구되어지고 있다.

2.1 사무환경과 기업조직의 변화

기업조직에 변화를 주는 요인은 가치관의 변화, 기업 환경, 경영이념, 정보통신 시스템의 진보이며 이와 같은 변화요인에 의해 기업조직은 조직구조의 변화, 업무유형과 정보기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 결과 지위나 등급을 초월한 창조적 작업을 보 조해주며 융통성 있는 사무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종래의 수직적 피라미드 조직에서 수평적 팀 조직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수직적 조직이 갖는 정보의 정체로 인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다. 더불어 정보의 공유를 위해 네트워크 조직으로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전체의 조직이 컴퓨터를 통해 상호 연결되면서 계층을 초월한 정보 교류가 이뤄지게 되었다.

2.2 사무환경의 4가지 유형분류³⁾

공간을 유형화 시키는 요소인 공간의 형태, 가구의 이용 방법, 자율성, 상호작용을 기준으로 사무환경의

2) 인간주의적 이론이란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업무환경과 관련된 업무 만족도와 대인 관리의 관점에서 조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Hallow는 조직을 근무자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개인적 발전에 대한 요구들간의 위계로 설명하며 물리적 환경요소는 근무자가 불만족할 때 비로소 중요하게 자각되어 업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Herzberg는 업무에 대한 흥미, 자치권, 사회적 접촉과 같은 만족인자와 급여나 감독, 회사 정책 등과 같은 불만족 인자개념을 수립하여 물리적 환경은 불만족인자로서 부적합한 상태에서 업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한다. Linkert의 연결핀 모델은 그룹과 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직은 중첩되는 피라미드로 시각화되고 연결핀으로 불리우는 구성원들로 상호 연결된다. Homans의 그룹이론은 물리적 환경조건에 의한 접근성의 조절로 상호작용의 기회를 통제할 수 있으며 개인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제안된 오피스 랜드스케이프나 개방형 사무공간도 그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3) Francis Duffy whit contributions from Kenneth Powell, The new office, Conran Octopus, London, 1998

1) 박세연, 사무환경변화에 대응한 사무공간 실내디자인 계획 : Flexibility개념을 도입한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2006

분류형태는 4가지(Hive, Cell, Den, Club)로 분류되어 질 수 있다.

① Hive

Hive형 사무공간은 획일적인 open-plan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4층은 6개 단위의 열린 공간으로 형성되고, 최소한의 칸막이와 서류정리 공간으로 간단한 표준 공간이 형성된다. 비인간적, 물개성적, 집단적 성향을 띄며, 공간의 점유는 시간표에 의해 정해지고, 낮은 상호작용을 요구하며, 전임시간의 관습적인 9~5까지의 업무가 이루어진다. 전임시간을 위하여 공유된 공간을 제외하고 작은 공간을 점유하게 되며, 업무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 구성되고, 정확한 지시와 약간의 자유재량을 가진 간부에 의해 일이 수행된다. 적합한 회사조직으로는 전화판매직, 데이터처리, 간단한 은행 업무, 금융, 행정, 기본적 인포메이션 서비스 등이 있다.



그림1.Hive형과 Cell형 office

② Cell

Cell office는 개인적이고, 집중적인, 상호작용이나 교류가 거의 없는 업무에 적합한 형태로, 업무유형은 지식을 다루는 일과 같은 고급의 업무가 재능 있고 유능한 사람에 의해 수행되어지는 형태이다. 공간의 점유는 개인의 배치에 의존하며 좀 더 가변적이고, 공간의 점유가 낮다면 고정된 개인의 공간이 존재할 기회가 있다. 보통 높은 파티션으로 개인 공간을 구획하여 세 포처럼 둘러싸여진 업무공간을 형성한다. 적합한 직종에는 회계사, 변호사, 경영/고용 컨설턴트, 컴퓨터 과학자, 연구원 등이 있다.

③ Den

Den office는 90년대에 들어 많이 보급되기 시작한 형태이다. Hive형과 유사하게 공간의 점유는 관습적인 9~5까지의 업무수행시간을 통해 이뤄지지만 하위집단간의 행동에 의해 더 다양한 모습을 띈다. 사무실 내의 책상들이 더 떨어진 이후로 직원 상호간의 영향이 증가하였고 시간을 초월하여 공간을 공유한다. 그룹 공간 혹은 그룹, 그룹실과 기타 휴식공간과 같은 support area의 비중이 높아지고, 복잡하고 연속적인 공간은 업무공간과 회의 공간으로 통합된 공간유형이다. 적합한 조직으로는 방송국, 광고회사, 보험회사, 미디어 등의 조직이 있다.



그림2. Den형과 Club형 office

④ Club

Club office는 고급의 업무가 재능 있고 유능하며 일을 하기 위해 협력적이고 개성을 발휘하는 개인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에 적합한 형태이다. 공간의 점유는 시간에의 구애를 받지 않으며 불규칙적이고 간헐적으로 유지된다. 복잡하고 상호의존적인 팀 작업을 위한 공간은 개인의 업무 공조에 의해 이뤄지며, 넓은 범위를 자신의 이익 창출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한다. 다양한 업무를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넓게 구획된 공간을 다른 복합 용도에 의해 다시 다른 용도로 구획하여 사용한다. 적합한 조직으로는 광고회사, 멀티미디어 회사, 정보기술 회사, 경영 컨설팅 회사 등이 있다.

2.3 사무공간의 변천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사무환경은 여러 요인들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사무환경의 변화 요인은 크게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들 수 있다. 첫째로 사회 환경의 변화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국제화, 세계화로 대변되어지며 사회계층도 다층화, 복잡화되고 생활스타일도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 둘째로 과학기술의 변화이다. 사무자동화 기술의 발달과 건설 기술의 발달을 촉진시켰으며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으로 한정되던 공간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 셋째로 기업환경의 변화이다. 산업구조가 3차 산업으로 크게 전환되고 2차 산업 중에서도 제조보다는 관리, 개발, 또는 유통이나 판매부분등의 서비스 관련 업무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기업의 이미지나 정체성을 중요시하게 되고, 기업전력이 다각화되면서 사무환경은 이를 대변해주는 매개체로서 인식된다. 넷째로 근무자 의식의 변화이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춰 구성원들의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남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개성표출의 성향이 높아지며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인해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무환경의 질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⁴⁾.

1950년대 후반 독일의 경영자문회사인 Quickborner에 의해 burolandscapth(office landscape)로 불리우는

4) 박세연, 사무환경변화에 대응한 사무공간 실내디자인 계획 : Flexibility개념을 도입한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2006

사무공간 계획이 처음 나타났다. 이 오피스 랜스케이프는 폐쇄형 개인 사무공간을 배제하고 오픈된 공간에 비정형적인 책상배치, 휴식공간을 마련하였고 업무의 흐름과 편리한 커뮤니케이션을 추구하기 위해 나타난 새로운 개념의 사무공간 형태였다. 오피스 랜스케이프는 이후에 오픈 오피스 플랜과 시스템 퍼니처의 개발로 발전되었다.

1960년대에는 미국에서 액션오피스에 대해 연구가 시작되었다. 액션오피스란 수평적 공간외에 수직적 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근무자에게 독립적 사무공간과 커뮤니케이션 공간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개발된 사무공간 개념으로 시스템 퍼니처의 개발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1972년 네덜란드 건축가 Heramn herzbrger에 의해 클러스터형 사무실이란 개념이 도입된 Central Beheer 보험회사사옥이 설계되었다. 클러스터형 사무실은 전통적인 사무공간의 형태나 개방형평면과는 상당히 다른 개념으로 3mX3m모듈을 기본으로 9mX9m의 유니트에 12명이 배치되도록 계획하였고 개인을 위한 공간과 공동을 위한 공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러한 유니트는 하나로 연결되게 되고 다양한 접근통로를 갖게 되었다. 이 계획은 공용공간이 제공하는 즐거움이 근무자들에게 활기를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여 좋게 평가 되었다.

1987년 미국의 Union Carbide의 신사옥 건물에 유니버설플랜 개념이 적용되었다. 이는 기존 사무 공간 유형을 단순화시키고 그에 따라 지위나 직급에 따른 공간의 차별단계도 축소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사무공간계획과 비교하였을 때 계획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후에는 인텔리전트 오피스란 개념이 도입됐는데 미국에서는 스마트 빌딩, 유럽과 일본에서는 고도의 정보화건축물로, 국내에서는 첨단정보 건물 또는 지능형 건물이라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무공간도 변화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은 조직이나 조직 구성원들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급변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의 변화는 조직에게 보다 더 유연한 대처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사무실의 공간 개념은 단순히 일터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 환경과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고 따라서 현재 우리의 사무공간도 현 사회 환경과 상황에 적합하고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심리적 스트레스를 포함-에 대응하여 계획되어져야한다.

3. 감성적 Office Landscape와 튀셔의 심리치유 이론

랜스케이프(Landscape)란 인간의 시각각을 통해 인지되고, 나아가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자연과 인공물이 형성하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모습을 일컫는다. 르네상스의 시기의 랜스케이프는 사적공간에 나무를 심고 정원을 가꾸는 행위에 갇혀 있었다. 기존에는 외부공간의 자연경관이 공적인 공간으로 건축설계에 의한 내부공간이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적인 공간으로 인식되었지만 현대에 들어서 랜스케이프의 발전에 의해 현대건축에서도 다양한 규모의 공적인 내부 공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 발전에 있어서 시작은 볼륨의 거대함, 조명의 강렬함 또는 나무의 식재를 통해 단순히 외부 경관을 담고자 하는 직접적인 방식이 이루어 졌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직유의 방법보다 외부공간과 자연경관의 요소를 건축 내부공간에 도입하여 미적체험의 질을 향상, 체험의 깊이를 더해주며 내면적 상상력을 북돋울 수 있는 '은유' 또는 '유추'의 추상적인 공간표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랜스케이프는 인공과 자연(artificial-natural), 상과 바탕 (figure-ground), 절대와 상황(absolute-circumstantial), 합리와 유기(rational-organic)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었던 서구적 전통, 가깝게는 모더니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1950년 독일에서 출발한 office landscape는 계급, 서열에 의한 획일적인 배치에 대한 방성으로서 사무의 흐름이나 작업의 성격을 중시하여 능률적으로 배치한 방법으로, 개방 공간에서의 작업자의 심리적인 상태를 감안해 별도의 칸막이 벽 없이 mobile partition으로 사무공간을 구획하는 것을 개방식 시스템이라고 하며, 이를 특별히 Office landscaping(오피스 랜스케이핑)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위에서 거론된 landscape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의 landscape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office landscape의 개념에 감성적이고 치유적인 언어로서의 landscape의 개념을 추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미적체험과 효율성이 공존하여 발전된 office landscape를 제시하고자 한다.

3.1 감성적 office landscape의 필요성

최근 직장인 스트레스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자주 대두되고 있다. 직장인 스트레스의 원인으로서는 무엇이든지 빨리 이루려는 조급증,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생기는 압박감, 직업상의 변화(직무수행상의 생소함, 낮은 부서로의 진출, 퇴출 염려), 작업환

경(업무과다, 업무과소, 일의 단조로움, 통제력 상실, 성취감 부족, 열악한 업무시간, 조건), 치열한 경쟁의식의 심화, 상사나 동료와의 인간관계 등을 들 수 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감정의 발현이 지나치게 되어 병으로 발전되기 쉽다. 구성원들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상은 그 조직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문제를 불러온다. 심한 경우 구성원의 사회적 낙오-목숨을 던져버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기도 하여 이러한 심각한 직장인 스트레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 취업정보포털사이트(<http://www.albamon.com>)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원인에 직접 부딪히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응답자는 ‘딱히 대응하거나 해결할 방안이 없다(32.5%)’고 답했다고 한다. 그 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진다’, ‘술을 마신다’, ‘다른 일에 몰두한다’ 등의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 방안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앞 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무 공간은 사회에 의해 변화해 왔고 오늘날 직장인 스트레스는 사회의 큰 이슈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무공간의 계획에 있어서 직장인 스트레스가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직장인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사무공간 계획의 요소를 찾고자 하며 이에 ‘막스 뤼셔의 심리치유이론’을 접목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3.2 뤼셔의 심리치유이론과 공간표현

막스 뤼셔(Max Lüscher, 1923- ,스위스)는 마음의 균형을 이루게 하고 또한 무너뜨릴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 심리구성요소로 ‘만족’, ‘자신’, ‘자존’ 그리고 ‘내면적 자유’를 제시했다. 이 네가지의 적절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심리적 건강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자기감정은 몸의 상태, 외모, 행동, 운명 그리고 개인적 생활양식을 이루는 모든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생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무공간의 디자인 성향 또한 이러한 감정 상태에 따른 태도에 의해 변화되고 그 특성을 나타내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요소들에 의해서 객관화 시킨 공간 형태는 원인과 결과의 고정되고 단편적인 연관성에만 치우치는 한계가 발생한다. 반면, 내적인 심리요소의 연구는 상황 선택의 “주체”가 되는 개인의 특성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측면에서의 관계성을 부각할 수 있는 것이다. 뤼셔에 의하면 정상적인 네가지 감정 상태는 ‘만족=1’, ‘자존=2’, ‘자신=3’ 그리고 ‘내면적 자유=4’로 나뉘어지며 이 네가지 감정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양의 방향으로나 또는 음의 방향으로 치우치게 될 때 여덟가지 잘못된 자기중심적 자기감정이 표출된다고 하고 있다⁵⁾.

표1. 여덟가지의 잘못된 자기중심적 감정

+1	+2	+3	+4
자기방임 자기마취 자제력이 부족해짐	자기강제 (거만함, 우월감, 권력욕, 위신)	자기송배 (과시욕, 도전성, 공격성)	자기도피 (환상적 기대로의 도피)
-1	-2	-3	-4
자기과소평가	자기해방 (좁은 곳에서의 공포감, 위신과 인정을 얻기 위해 방해물로부터 해방되려는 지나친 욕구)	자기연민 (과로, 부담감, 자신감 약화, 쉽게 흥분함)	자기불안 (상실에서의 공포, 소심, 걱정)

+1은 만족부분의 자기 과대평가로서 자기방임 또는 자기마취의 욕구 상태로 자제력이 부족해짐을 의미하고 -1은 만족부분의 자기과소평가로 불만의 상태로 소홀한 취급을 받는 느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존 대신에 +2는 자기강제(거만함, 우월감, 권력욕, 위신), -2는 자기해방(좁은 곳에서의 공포감, 위신과 인정을 얻기 위해 방해물로부터 해방되려는 지나친 욕구), 자기 대신에 +3은 자기송배(과시욕, 도전성, 공격성), -3은 자기연민(과로, 부담감, 자신감 약화, 쉽게 흥분함). 내면적 자유 대신에 +4는 자기도피(환상적 기대로의 도피), -4는 자기불안(상실에서의 공포, 소심, 걱정)등으로 분류된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또한 이러한 감정 상태의 불균형으로 인해 생겨난다. 따라서 원천적인 스트레스의 폐쇄는 불가능 하겠지만 네 가지 심리구성요소의 공간표현에 의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가지 심리구성 요소인 만족, 자존, 자신 그리고 내면적 자유는 각기 피난처성(Refuge), 조망성(Prospect), 흐름(Flow), 그리고 허공(Void)과 같은 공간표현요소와 연계시킬 수 있고 이들은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을 표현하여 사무공간에서도 office landscape의 역할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요소와 공간표현의 요소가 연계된 네 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사무공간과 연관하여 고찰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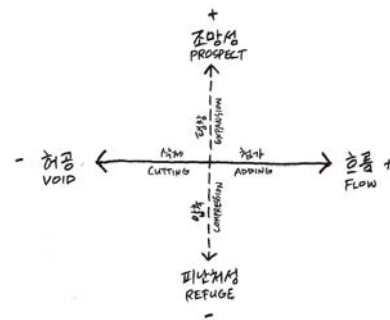


그림3. 공간 이미지 좌표⁶⁾

5) 김광호, 공간표현과 감정특성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막스 뤼셔의 심리치유이론을 중심으로, 2005

A.만족-피난처성(Content-Refuge)

‘피난처성’이란 인간에게 필요한 필수적 안전함과 기능적인 조건들이 충족될 때의 공간적 보호감각을 말한다. 피난처성은 신체접촉범위에 속하는 주변 공간에서 시야범위-상하 60도 및 좌우 120도-에서 벗어나는 부분의 보호적 조건으로서 시각적 형식성이 적용되지 않는 촉감적내용성을 그 중요한 공간표현성 해석기준으로 삼는다. 즉 피난처성은 ‘평온’의 상태를 목표로 하는 ‘만족’의 개념이 적용되는 공간표현의 기본요소이다.

이는 사무공간에서 작업의 집중적 효율성과 프라이버시를 통한 안정감을 얻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B.자존-조망성(Self esteem-Prospect)

‘조망성’은 인간의 신체적 접촉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한 시야의 확보로서 다섯 가지 감각이 모두 적용되는 여기(her)의 공간이 아니고 시각각(vision)만이 적용되는 저기(there)의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이다. 시공간적으로 가까이 근접한 환경에서의 요소인 피난처성의 개념과 대비되는 것으로 시각을 통해 내면화되는 이미지 차원의 문제로 안정적인 감정상태보다 적절한 흥분을 유발하는 다양성과 그 변화성을 질서있게 조절하여주는 통일성의 조화에 대한 추상적 개념이 중시된다. 즉 조망성을 자아의 존립에 관한 ‘자존’이란 형식 측면과 같은 감정적 가치를 충족하는 것이다.

사무공간에서 자연으로의 조망은 자연의 존재로서의 개인적 자존감을 높여주며 재충전(refresh)을 지원하고 직장동료간 상호 시선확보인 사회적 조망은 정서적 교류감 증대를 통해 공동체적 자존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

C.자신-흐름(Confidence-Flow)

‘흐름’이란 공간표현개념은 목표지점에의 도달을 위한 공간적 에너지의 발현과 관련되는 것이기에 ‘자신’의 감정 상태가 갖는 능동적 역동성과 같은 맥락에 있다. ‘흐름’이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시스템적 프로그램과 이미지적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전자는 신체의 능동적 이동인 동선의 흐름(circulation)이고 후자는 이미지의 수동적 이동인 시선의 흐름(visual sequence)을 말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흐름의 경로는 서로 간의 일치와 불일치를 리듬있게 반복하여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할 때에 깊이 있는 공간체험을 가능케 한다.

사무공간에서 동선과 시선의 자유롭고 역동적인 흐름 확보는 자신감증대를 가능케 하여 업무효율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D.내면적 자유-허공(Liberty-Void)

‘내면적 자유’는 ‘미학적 의미의 충족’에서 오는 감정 상태이다. 이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의 차원을 초월한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개념으로 자아실현의 개념과 같은 단계에 놓여 있다. ‘허공’은 실공(solid space)의 일상성과 기능적 고정성에 대비되는 비일상적이고 불확

정적인 기능을 갖는다. solid의 cutting이나 상대적 공간이용 밀도의 낮음 등을 통해 구성될 수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였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신적 삶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 표현의 요소인 것이다. 내면적 자유는 이러한 고정된 일상성을 잠시 해방된 여유감을 통해 가능하다.

사무공간에서 여유 있는 허공간에 근접시키는 것은 사색(meditation)의 행위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과 해방을 얻는 시간을 증대시켜주며 깊은 생각의 기회를 통해 보다 나은 업무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4. 사례 연구

4.1 광화문 교보생명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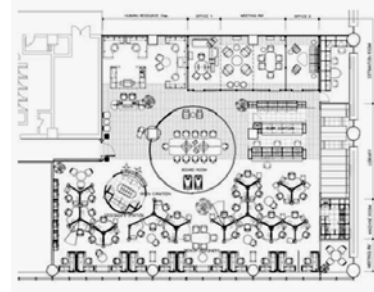


그림4. 평면계획 교보생명의

교보생명 office는 Cell office의 형식으로 자유로운 형태로 구성되어져있다. 보험회사의 업무 특성 상 개인적인 업무공간 외에는 팀내 회의공간 또는 고객과의 접견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휴식을 위한 공간의 큰 배치는 보이지 않는다. 고정된 벽체의 사용을 최소화하였고 무빙월을 사용함으로써 공간의 확장과 유연성을 확보하였다. 교보생명 office의 경우 동선이라든지 정해진 업무에 필요한 공간의 이용에 중점을 둔 계획이기 때문에 흐름이 강하고 개인을 위한 공간에서 볼 수 있는 피난처성과 조망성을 위한 요소는 부족한 상태이다.

4.2 Chiat/Day Advertising Inc.(1995)-가에타노 페쇄,뉴욕,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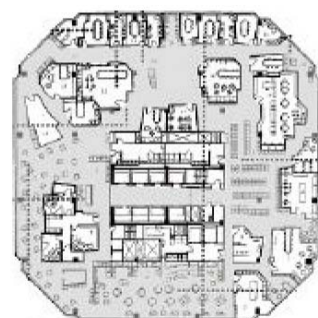


그림5. 치아트/데이의 평면계획

6) 김광호,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 미건사, 2004, p.16

미국의 대표적인 광고회사인 치아트/데이는 가에타노 페쇄가 탈영역적 공간과 사무 공간내의 위계를 벗어나려고 한 업무 환경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대표적 프로젝트이다⁷⁾. 가에타노 페쇄는 치아트/데이의 설계에 있어서 건축과 실내 공간이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의 기능을 담당하고 창조적인 생각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디자인하였다. 기존의 위계질서를 위한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탈영역적인 유동적 업무 공간으로 구성하였고 코어를 중심으로 기능들이 순환하는 동선의 흐름을 통해 배치되었다.

치아트/데이는 Den office 형태로 개인을 위해 정해진 공간은 없지만 오픈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공간 점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공간에서 개인 업무 뿐만 아니라 가벼운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공간 구성을 통해 공간에 유연성을 줬는데 의도적으로 비워진 실내광장이나 내부가로, 카페 미팅 포인트 등이 그 요소이다. 특히 의도적으로 공간을 비움으로써 Void의 개념이 적절히 도입되며 내면적 자유의 감정상태를 충족시켜주고 더불어 연계될 수 있는 피난처성의 일부도 충족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온전히 계획되어진 개인 공간이 없기 때문에 피난처성을 완벽하게 만족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

4.3 KBP West - Jensen & Macy, 샌프란시스코,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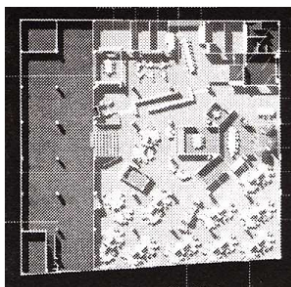


그림6. KBP의 평면계획

KBP West는 업무공간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설계한 광고회사이다. Club office의 형태로 회의실과 미팅룸의 수가 다른 업무공간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폰부스라고 불리는 공간은 매스 형태로 잘라낸 공간을 다른 단차로 하여 배치하였는데 광고 회사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는 부분이다. 나무와 벤치로 구성된 실내가든과 넓은 스타디움 계단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고 흐름이 원활하여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효과적으로 일어난다.

창의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광고회사인 만큼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 할애가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미팅룸과 같이 정해진 커뮤니케이션 공간 보다 비공식적

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배려가 돋보인다. 실제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간혀진 공간에서 정해진 주제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에서 보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커피를 한잔 마시며 혹은 복사기 앞에서의 잠깐 동안의 담화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간 요소를 살펴보면 실내가든이나 스타디움 계단, 폰부스와 같은 허공의 요소를 찾을 수 있지만 이 역시 공공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개인의 피난처성에 관련된 요소는 미미함을 알 수 있다.

4.4 Commerz Bank-노만 포스터,프랑크푸르트,독일



그림7. 코메르츠 뱅크

인텔리전트화된 그린오피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만 포스터에 의해 디자인된 프랑크푸르트의 코메르츠 뱅크 본사 건물을 들 수 있다. 이 건물은 삼각형의 기둥 모양으로 구성되어 전체 건물 높이 290m, 60층 규모의 대형 건물로, 적용 가능한 생태적 요소를 총망라하여 설계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그린빌딩의 기술요소로서 자연채광, 녹지공간 확보, 물의 재활용, 재활용 가능한 재료의 사용을 채택하고 있다. 코메르츠 뱅크는 자연채광 방식을 채택하여 8만 5천m³의 내부공간에 고루 햇빛이 들게 했고 건물의 중앙부에는 1층부터 60층까지 아트리움을 통해 자연광을 유입함으로써 밝고 친근감 있는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그리고 생태적 공간 확보를 위해 건물의 매 4층마다 건물의 1/3 구역을 허공으로 구성하여 하늘정원을 조성하고 수목이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실내로 수용된 9개의 허공인 하늘정원들은 건물의 '녹색허파'로 일컬어지며, 편안한 휴식공간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여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복잡하고 분화된 공간에서 서로간의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의 단위는 12m가량의 상호간 언어와 표정의 교류가 가능한 사람간 거리를 확보하는 4개층 정도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이 건물은 4층마다 사무실과 정원을 교차시켜 사무실 근무자 모두가 실내정원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건물의 사무실 근무자에게 자연과의 교감, 재실자간의 교감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제공하는 자연 친화적, 인간 중심적 건물의 모범이 되었다.

평면 배치를 살펴보면 개인 사무공간에서 하늘 정원

7) 차혁수, 탈영역적 사무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2006

이 바로 조망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조망성에 대한 요소와 허공에 대한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주며 이들은 피난처성 공간(개별 사무공간)과 상호작용하며 균형된 감정상태 확보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음 표는 네가지 사례조사들을 뒤셔이론의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비교정리한 것이다.

표2. 각 오피스의 뒤셔 이론에 따른 평가와 형태유형 분류

	형태유형	피난처성 (만족)	조망성 (자존)	흐름 (자신)	허공 (내면자유)
교보생명 office	Cell	X	△	○	△
Chiat/Da y Advertisi ng Inc.	Den	△	△	○	○
KBP West	Club	△	△	○	○
Commerz Bank	Cell	○	○	△	○

5. 결 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무공간의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타당한 사실이나 그 사회의 형식적 외양만 반영한 구성은 보다 본질적인 측면을 외면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의 내면적 갈등요소를 해결하는 공간구성을 어렵게 할 수 있다.

현 사회의 큰 문제이슈인 직장인 스트레스의 원인을 뒤셔가 말한 대로 만족, 자존, 자신 및 내면적 자유의 결여 및 그들 간의 불균형상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각 감정상태와 연계된 공간표현요소의 실현으로 치유할 수 있음이 이 연구의 주제이었다. 그리고 이는 감성적인 Office Landscape를 가능케 하는 요소인 피난처성, 조망성, 흐름 과 허공의 상호작용과 연계된 개념이었다.

각 사무공간사례의 공간표현요소에 따른 비교분석에서 만족-피난처성, 자존-조망성, 자신-흐름 및 내면적 자유-허공의 네 가지 요인이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경우를 발견하진 못하였다. 이는 각 조직이 우선 되어져야 할 목표와 특성 혹은 제약이 있어 그 모두를 충족할 순 없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반대로 그 특성에 의해 몇 가지의 요소들이 특별히 부각되는 점 또한 알 수 있었고 이는 오피스의 공간구성과 뒤셔의 이론의 연계성을 보여주는 측면이었다.

감성적인 Office Landscape에 있어서 뒤셔의 이론을 각 사무 공간의 업무상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그 공

간표현의 정도를 달리 하며 그들 간의 균형 상태가 가능한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용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치유환경조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김광호, 공간표현과 감정특성간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 막스 뒤셔의 심리치유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1권 2호, 2005
2. 박세연, 사무환경변화에 대응한 사무공간 실내디자인 계획 : Flexibility개념을 도입한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2006
3. 최현숙, 오피스 랜드스케이프 기법에 따른 사무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1993
4. 차혁수, 탈영역적 사무공간에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방법에 관한 연구, 2006
5. 김광호, 생태적 매트릭스 공간, 미건사, 2004
6. Francis Duffy whit contributions from Kenneth Powell, The new office, Conran Octopus, London, 1998
7. <http://www.albamon.com>, 2007.5.25.
8. <http://www.my.dreamwiz.com/godiam/stree/>